

동호인들 “외국선수와 교류기회 기뻐”



오픈워터·수구종목에 우리나라 100개팀 1천명 출전 시, 수영진흥센터·선수권·마스터즈대회 신설 검토

광주세계마스터즈대회에 우리나라에서도 100개 동호회 1,000여명이 참가하면서 한국 수영 동호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에 아티스틱수영, 오픈워터수영, 다이빙, 수구 등 일반 경영 외의 팀들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대회에 경영 동호회 76개로 800명이 참여했다. 오픈워터수영이 7개 동호회에 50명, 다이빙 동호회가 5개 팀에 40명, 수구가 3개 동호회에 40명, 아티스틱수영 동호회

가 3개 팀에 9명이 참가했다.

실제 우리나라 수영동호인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에 156명이 출전한 수영동호회 ‘SWIMON’ 박정민 회장은 “회원들이 마스터즈대회가 외국에서 열려나가고 싶어도 못가기는 경우가 많다”며 “광주에서 개최돼 무척 반갑고 참가 자체가 영광이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동호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50m 풀 등 경기장 시설이 부족해 수영을 하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며 “FINA 규정과 룰에

비해 우리 수영 현실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서울 오픈워터수영 GPG팀 회원 김현철씨는 “파도도 잔잔하고 주변 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여수 바다에서 경기를 치러 행복했다”며 “매년 여수 바다에서 정기적으로 오픈워터수영대회가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 연습을 할 수 있는 강이나 바다가 없다”며 “안전장비 없이 오픈워터수영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자 수구 경기에 참가한 서울

OLPAK Water polo 팀의 코치인 이준희씨도 “실력차가 많이 나지만 외국 선수들과 그 나라에 가서 다시 경기를 약속하는 등 많은 친구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수영도시 광주, 수영강국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기 위해 레저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영대회를 계기로 엘리트 선수 육성, 수영 지도자 양성, 수영의 대중화, 생존수영 확대를 위해 이번 대회의 유산으로 한국수영진흥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엘리트 수영과 마스터즈 수영의 구분 없이 수영스타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가칭)광주수영선수권대회와 동호인들을 위한 (가칭)광주수영마스터즈대회 개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93세 할머니 아름다운 역영 ‘감동’

아마노 토시코씨 여자 자유형 100m 완주 각국 선수단·관중 박수와 환호성으로 응원



13일 오후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주경기장. 조용하던 경기장은 일순간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했다. 93세 할머니의 역영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함성이었다.

여자 자유형 100m에 참가한 90세 이상급이자 이번 대회 최고령자인 아마노 토시코씨(93·일본)는 출발신호와 함께 85-90세급의 젊은(?) 두 선수와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힘차게 자신만의 페이스를 펼쳤다. 다른 두 선수는 이미 결승선을 터치했지만 아마노 선수는 이제 겨우 반환점에 다다랐다.

이를 지켜본 많은 각국 선수단과 응원단은 행여 지지지나 않을까, 중간에 포기하지나 않을까 가슴을 졸이며 지켜볼 즈음 관중석에서 하나 둘 박수가 시작되더니 이내 전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아마노 선수가 결승 패드를 터치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음으로 그녀를 응원하고 축하했다. 그의 기록은 4분 28초06. 기준기록인 3분55초를 넘지 못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나이를 잊

은 그녀의 도전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다.

아마노씨는 “아름다운 경기장에서 수영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땅에서는 무리가 있지만 물 속에서는 전혀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다”며 웃었다.

아마노씨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로 이동했으며 이날 경기에서도 출발대에 오르지 못하고 다른 선수와는 달리 바다에서 출발했다.

그녀는 “경기 중에 관중석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잘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응원을 받아 너무나도 행복했다”며 “다음 대회에도 계속 나갈 것이며 100세까지는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고 의욕을 불태웠다. /황애란 기자

“불별 피해라” 선수들 각양각색

하루 2천개 배부 얼음물 인기 상의 탈의·수영복 차림 선수도

33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에 참가한 각국 선수단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각양각색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조직위에 따르면 경영과 다이빙이 벌어지고 있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는 상의를 탈의하거나 수영복을 입고 활보하는 선수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최대한 옷을 풀어 더위를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선수들은 부채와 타월, 모자, 손선봉기 등 저마다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더위를 피하고 있다. 가장 큰 인기는 얼음물이다. 광산구가 매일 2,000여개씩 무료로 나눠주는 얼음물은 선수들이 바깥으로 나오며 가장 먼저 챙기는 물품이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한 장소는 선수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됐다. 쿨링존과 쿨링포그는 버스를 기다리는 선수들이나 대회 관계자가 몰려들어 북적이고 있다.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에어쿨러 앞은 최고 명당으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광주세계마스터즈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13일 오후 남부대 주경기장 인근에서 광산구에서 제공한 얼음물을 받고 있다. /수영조직위 제공

다. 선수들은 시원한 경기장 관중석이나 경기장 로브 등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미국 트레비스 커밍스 선수는 “날이 더워 시원하게 상의를 벗고 다닌다”며 “그래드 경기장 곳곳에 시원한 곳이 준비돼

있고 얼음물도 있어 크게 힘들지는 않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있고 얼음물도 있어 크게 힘들지는 않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물속에서는 장애도 편견도 없었다”

자폐장애 이동현씨 자유형 100m 조 3위로 골인 어머니 정순희씨 “비장애인과 당당히 겨뤄 기쁘다”

자폐장애 1급 이동현씨(29)는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13일 오후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주경기장에서 펼쳐진 남자 자유형 100m. 이씨는 같은 조 다른 6명의 선수와 나란히 출발대에 섰다.

출발신호가 울리고 이씨는 힘차게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레이스 초반 다른 2명의 선수와 선두권을 형성하며 힘차게 나아갔다. 50m를 30초27에 끊은 이씨는 역주 끝에 1분4초50의 기록으로 조에서 3위로 결승패드를 찍었다. 관중석에선 이씨의 도전을 환호와 박수로 격려했다.

뒤에서 숨죽이며 이씨의 역영을 지켜본 어머니 정순희씨(58)는 만감이 교차했다.

정씨는 “동현이의 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비장애인과 당당히 겨뤄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 경기에 만족한다”면서 “동현



이동현씨(왼쪽)와 정순희씨.

이게 ‘잘했다’고 말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물속에서는 어떤 장애도 편견도 없었고 그저 공정한 경기만 있었다”면서 “동현이가 오늘 경기를 통해 사람들과 부대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수영댄스 경연대회 분위기 고조

남부대 특설무대 9개팀 진출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킬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다.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남부대 특설 무대에서 젊은이들의 화려한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댄스 경연대회는 수영과 물을 주제로 관람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매력적인 댄스 장르나 순수 창작안무를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경연대회는 한국인 최초 ‘아메리카 갓 탤런트’ 본선에 올라 톱7까지 진출했던

‘애니메이션 크루’의 식전공연으로 막이 오른다. 춤추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일 ‘애니메이션 크루’는 살아 움직이는 미술 작품의 상상을 춤으로 실현하는 공연을 선사한다.

또 다른 축하공연으로는 수영댄스팀 피오션과 비트박스 팀프(tump)가 출연하여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 예정이다.

결선 진출팀은 순천을 대표하는

Stitch World, 차이나 소울 댄스 페스티벌 팀인 AREA51, 2017년도 힙합페스티벌 금상 팀인 H&M, 2017년도 코리아 힙합 인터내셔널 참가팀인 H2CH, P.E (passionate), DG Crew, to the girls, 런더워, 솔라C 총 9개 팀이다.

우수팀에게는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지고 마스터즈 기간 동안 남부대 특설무대에서 다시 한번 관객에게 선보일 기회가 주어진다. /황애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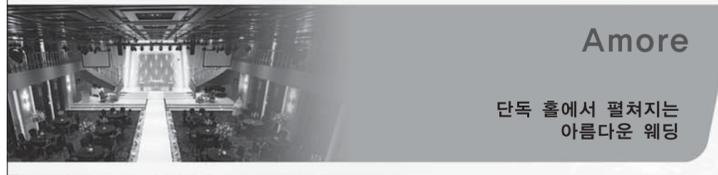
Stitch World, 차이나 소울 댄스 페스티벌 팀인 AREA51, 2017년도 힙합페스티벌 금상 팀인 H&M, 2017년도 코리아 힙합 인터내셔널 참가팀인 H2CH, P.E (passionate), DG Crew, to the girls, 런더워, 솔라C 총 9개 팀이다.

우수팀에게는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지고 마스터즈 기간 동안 남부대 특설무대에서 다시 한번 관객에게 선보일 기회가 주어진다. /황애란 기자

투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Amore

단독 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웨딩



Lobby

넓은 로비, 깔끔한 인테리어로 품격있는 만남의 공간



Fedes

돔 형태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웨딩홀



Parking

넓은 주차장 완비

제아트웨딩컨벤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당신의 특별한날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Wedding Day

결혼식 / 피로연 / 가족행사
기업행사 / 모임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자로 269.

제아트웨딩컨벤션 대표전화 062) 369-5200 / 010-4515-5203

